

## 관광산업의 지역혁신역량 지수개발에 관한 연구\*

-강원도, 전라북도를 사례로-

An Assessment of the Regional Innovation Capacity of the Tourism Industry-A case Study of GangWonDo and JeollaBukDo, Korea

李 厚 錫\*\*

Lee, Hoo-Suk

### ABSTRACT

*This study was to analyze and compare regional innovation capacity of tourism industry of two provinces: GangWonDo and JeollaBukDo, Korea.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was used to develop the measure of the capa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60 tourism specialists including tourism practitioners, administrators and academics. Results showed that cultural attraction appeared to be most important factor of the innovation capacity measur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the numbers of tourism information centers, the numbers of festival events, and the numbers of airport users were also important criteria of the innovation capacity. Furthermore, results demonstrated that sregional innovation capacity index of GangWonDo tourism industry appeared to be higher than that of JeollaBukDo tourism industry.*

**핵심용어(Key words)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관광산업의 지역혁신역량 지수(Regional innovation capacity  
index of the tourism industry),  
강원도(Gangwondo),  
전라북도(Jeollabukdo)

## I. 서 론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과 더불어 지방화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전환에 따라 국가보다 지역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지역을 단위로 한 지역혁신체제(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의 구축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김진수·최명신, 2007). 지역혁신체제란 각 지역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cluster)를 의미하는 것으로써(Porter, 1990) 그 지역의 전략산업에 속한 혁신 지향적 기업, 연구소 및 대학, 지역발전공사 및 기타 기관 등이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김경희, 2005).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는 전 세계적으로 국경 없는 경쟁무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세계 각국은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위한 토대가 되는 산업을 형성하여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지역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이루기 위해 산·관·학·연이 주도되는 지역발전전략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심원섭, 2004).

한편 지역혁신은 분권화된 지역의 역량과 혁신능력이 있는 기업을 통한 상승효과(synergy effect)를 강조한다(정재진·임채홍, 2008). 관광산업이 지역혁신의 동력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광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그 혁신역량을 점검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관광산업의 실제적 중요성과 학술적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시도된 몇몇 연구는 특정 요소를 중심으로 관광산업 경쟁력을 이해하려 하였으나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관광산업의 시스템적 특징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었다(Poon, 1993; Porter, 1990; 심원섭, 2007 재인용).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광산업 지역혁신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사례지역으로 삼아 관광산업 지역혁신역량 지수를 산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성과는 첫째, 관광산업의 지역혁신역량 지표개발 및 지역혁신역량 지수 활용을 통해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효율적 방안 제시할 수 있다. 둘째, 낙후지역이나 관광산업이 지배적인 지역개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지역혁신역량 지수 개발 방법론은 타 학문분야에서도 활용도가 높아 향후 인접 학문분야에서 의사결정 및 평가와 관련된 제반 분야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327-B00869)

\*\* 한세대학교 국제관광학과 교수. e-mail: husuklee@hansei.ac.kr

## II. 관광산업의 지역혁신역량

관광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결합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다. 국가경쟁력 확보 및 지역혁신에 대한 주체로서 관광산업이 그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기 위해서 관광산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하는데, 이것을 관광산업의 지역혁신 역량이라고 정의한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기존 산업클러스터들을 혁신클러스터로 전환시키거나 새로운 혁신클러스터를 발굴·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역량 지수개발 및 활용을 통한 정책적 지침 제시가 필요하며,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혁신 역량의 제 요소들에 대한 발굴과 이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통한 재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지역혁신체제를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 지속적인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혁신 내재화를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연구자들의 경우도 지역혁신체제 및 지역혁신역량 구축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Cooke, Uranga & Etxebarria, 1997; Gerstlberger, 2004; Doloreux & Parto, 2005; Bosco, 2007; Choi & Lee, 2009; 박성복, 1999; 장석인·정은미·이상연·박정수, 2001; 유병규·박영금, 2004; 김경수·김경빈, 2006)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산업의 지역혁신역량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보면 관광지 혁신역량(장은영, 2004)과 지역 관광산업의 혁신역량을 측정한 연구(강정임, 2006)가 있으나, 정작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필요한 지역혁신역량 지수를 개발하고 지역별 관광산업 지역혁신역량을 비교하는 실증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다. 다만,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대상지역의 관광관련 지표를 도출·측정한 소수의 연구(금기용·장윤희, 2006; 정승준·한범수, 2006; 김진수·최명신, 2007; 심원섭, 2007; 김홍식, 2009; 법제처, 2009; World Economic Forum, 2009)는 있었다. 그런데 관광산업은 이제 산업 그 자체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성과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혁신의 산업으로 그 성격이 변모되고 있다.

특히 관광산업이 지배적인 강원도나 광역시·도 차원의 지역혁신역량 지수가 가장 낮게 평가되고 있는 전라북도는 관광산업이 전략산업이자 기반산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그들 지역에서는 관광산업의 육성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 위상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관광산업의 성공요인인 '경쟁력'을 중심으로 향후 관광산업의 지역혁신체제(RIS) 구축을 위한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줄 수 있는 관광산업의 지역혁신역량 지수개발에 대한 연구

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표 1〉 관광산업의 지역혁신 역량지수 도출을 위한 관광 지표 관련 선행연구

	강정임 (2006)	금기용· 장윤희 (2006)	정승준· 한범수 (2006)	김진수· 최명신 (2007)	심원섭 (2007)	김홍식 (2009)	법제처 (2009)	World Economic Forum (2009)
매력물	관광(단)지 수	✓						
	관광특구 수	✓						
	세계문화유산 등록수					✓		✓
	세계자연유산 등록수					✓		✓
	세계무형유산, 기록유산 등록수					✓		
	축제 및 이벤트 수	✓		✓				
	문화기반시설 수		✓		✓			
관광현황	박물관 이용률					✓		
	국내관광 선호도 순위	✓						
	관광객 수	✓						
	관광객 증가율(5년)	✓						
접근	관광수입		✓			✓		
	국제공항 수	✓	✓					✓
	공항이용여객 수					✓		
회의/박람회	도로율(연장)	✓			✓			
	승용차 등록 대수				✓			
	관광박람회 개최수			✓				
	국제회의 개최건수		✓			✓	✓	
	국제회의 전문시설 수	✓						
홍보/안내	국제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건수	✓				✓		✓
	국제컨벤션 센터 규모		✓			✓		
	시군 홍보 영상물 제작 수			✓				
숙박	관광안내소 수		✓	✓		✓		
	관광안내표지판			✓				
환경	호텔객실 수		✓		✓	✓		✓
	평균객실점유율				✓	✓		
경제	환경 감시 모니터링 기관수	✓						✓
	보호구역							
	1인당 GRDP		✓				✓	
인적자원	GRDP 성장율		✓				✓	
	관광산업의 GDP비율					✓		
	관광인력양성 기관 수	✓		✓				
	관광고용비율	✓	✓			✓		
	연간 관광고용성장율	✓				✓		
예산/인센티브	서비스업 종사자 수			✓				
	관광관련 부서 공무원 비율	✓						
관광사업	예산 중 관광부문사업이 차지하는 비율	✓	✓		✓			
	우수 여행상품 인센티브제			✓				
	관광진흥법 상 여행업수						✓	
	관광진흥법 상 호텔업수						✓	
	관광진흥법 상 국제회의업 수						✓	
	관광진흥법 상 카지노업 수						✓	
	관광진흥법 상 관광객이용시설업 수						✓	
	관광진흥법 상 관광편의시설업 수						✓	
	관광진흥법 상 유원시설업						✓	

### III. 연구방법

#### 1. 연구의 단계

관광산업 지역혁신 역량지수 산출을 위한 평가지표의 중요도(가중치)를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AHP는 상층되는 다수의 기준 하에서 의사 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의 틀을 제공하는 다 속성 의사결정기법의 하나로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화한 후 상위계층 요소에 대한 직계 하위계층 요소들의 가중치(상대적 중요도)를 쌍대 비교에 의해 추출하여 궁극적으로 최하위 계층에 있는 요소나 대안들의 가중치를 도출하는 기법이다. AHP는 복잡한 의사결정 상황을 계층화와 쌍대비교를 통해 단순화하며,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 또한 평가의 논리적 일관성을 측정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관광산업 지역혁신역량의 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유용한 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관광산업의 지역혁신역량지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계층화된 평가항목을 문헌연구를 한다. 관광산업 관련 선행연구와 지역혁신역량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관광산업의 지역혁신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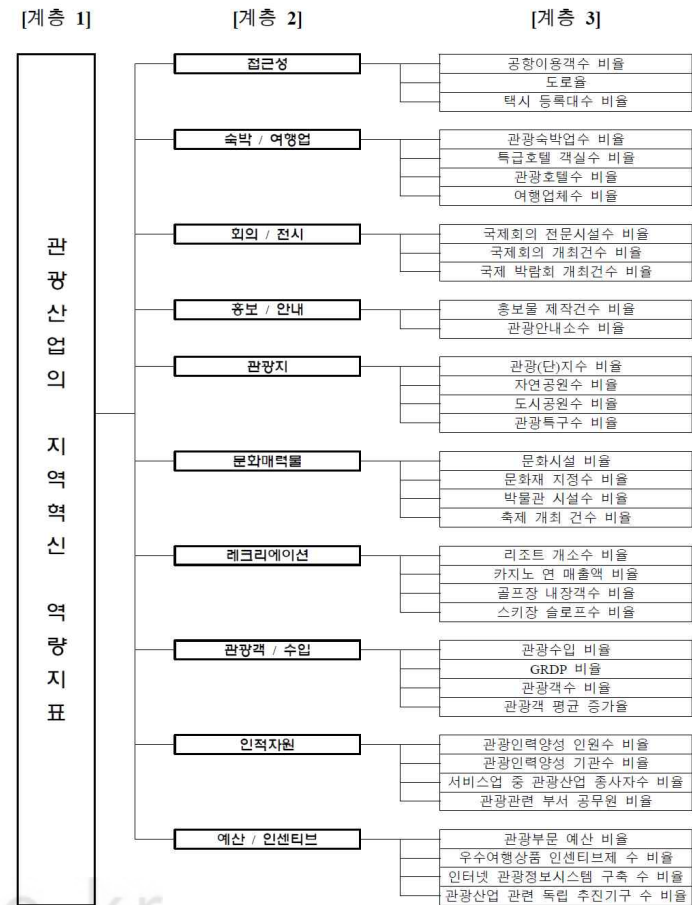
둘째, 위에서 도출된 최상위 항목을 기준으로 각 부문에 해당하는 하위항목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두 차례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전문가 의견 수렴 2회)는 문헌조사 결과 수집된 자료들에 대한 지표역할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이며, 2차 조사는 1차 조사 결과 추출된 지표 간 가중치를 설정하고 중요도를 산출하기 위한 설문조사의 단계이다.

셋째, 관광산업이 미래의 강원도·전라북도지역의 전략산업으로서 채택되기 위해 필요한 이 지역들의 관광산업의 지역혁신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현재의 관광 인프라, 관광자원, 관광정책, 관광동향 등의 관련 자료를 조사한다.

넷째, 설문조사결과자료를 분석하여 계층2, 계층3의 평가요소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혁신역량 평가영역별 지수를 구하고 그것을 합산한 지수를 산출하여 두 지역을 비교한다.

#### 2. 계층의 구성

연구문제를 계층화하는 것이 AHP의 첫 단계이다. 위계구성 시 계층의 최상층에는 가장 포괄적인 의사결정 목적이 자리 잡는다. 그 다음의 계층들은 의사결정의 목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다. 이들 요소들은 낮은 계층에 있는 것일수록 구체적인 것이 된다. 여기서 한 계층 내의 각 요소들은 서로 비교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계층의 최하층은 선택의 대상이 되는 여러 의사결정 대안들로 구성된다(정승준·한범수, 2006).



〈그림 1〉 관광산업의 지역혁신 역량 지표

본 연구에서 수립된 계층의 구조는 '관광산업의 지역혁신 역량지표'라는 목적 하에 2계층에는 10개의 평가영역을 두었으며, 3계층은 10개의 평가영역의 세부평가요소들은 각각 2~4개의 요소들로 구성하였다(〈그림 1〉 참조).

계층구조 수립에 있어서 동일성과 연속성 원칙을 준수하여 구조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3인의 관광학과 교수로 구성된 전문가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여기에서 도출된 항목들을 대상으로 다시 2인의 관광학과 교수와 1인의 관광관련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계층구조를 수립하였다. 여기에서 동일성의 원칙은 각 계층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서로 동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계층적 연속성의 원칙은 상위계층의 속성을 평가지표로 하여 두 속성씩 쌍대비교가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정승준·한범수, 2006).

### 3. 자료의 수집과 분석

설문조사는 관광 관련 정부기관, 지자체 공무원, 연구기관 및 관광학과 교수와 산업계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009년 8월 3일부터 31일까지 총 6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다. AHP는 표본크기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정승준·한범수, 2006), AHP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문제에 대한 실무지식과 전문적 경험이 있는 집단의 규모는 집단의 특성이 동질적일 때 10명 이내로도 충분하다(이창효, 2000).

AHP기법의 신뢰성 분석은 각 평가 항목들의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경우 대상자 개개인의 판단차원의 오차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인 일관성 비율(CR)을 계산함으로써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CR은 그 값이 작을수록 판단의 일관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CR이 10%(0.1)보다 작을 경우 응답자가 상당히 일관성 있게 이원비교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며(Saaty, 1982), 이러한 일관성에 대한 편차는 일관성 지수(CI)로 나타낸다. 설문지의 CR값이 0.1이상인 경우에는 Saaty는 설문을 재조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회수된 설문지를 대상으로 일관성 비율을 측정한 결과 0.1이상으로 나타난 21부를 제외한 39부의 표본을 확보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Expert Choice 2000과 MS Office Excel 2007을 이용하여 계층화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위하여서는 SPSS 13.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자료의 특성

자료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22명(56.4%)으로 여성(17명, 43.6%)보다 많았으며, 학력은 대학원 이상이 25명(64.1%)으로 가장 많았다. 근무분야는 학계가 12명(30.8%)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원(소)이 9명(23.1%), 산업계 7명(17.9%), 지자체 공무원이 6명(15.4%), 정부기관 5명(12.8%) 순이었다. 연령은 30대가 18명(46.2%), 40대 12명(30.8%), 50대 이상 7명(17.9%), 30대 미만 2명(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에서는 300-399만원이 14명(35.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400-499만원이 8명(20.5%), 500만원 이상이 7명(17.9%), 200-299만원 6명(15.4%), 200만원 미만이 4명(10.3%)으로 나타났다.

〈표 2〉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n		%	
	n	%		n	%	
남자	22	56.4%	30대 미만	2	5.1%	
여자	17	43.6%	30대	18	46.2%	
고졸 이하	1	2.6%	40대	12	30.8%	
대졸	13	33.3%	50대 이상	7	17.9%	
대학원 이상	25	64.1%	200만원 미만	4	10.3%	
학계	12	30.8%	200-299만원	6	15.4%	
정부기관	5	12.8%	300-399만원	14	35.9%	
지자체 공무원	6	15.4%	400-499만원	8	20.5%	
연구원(소)	9	23.1%	500만원 이상	7	17.9%	
산업계	7	17.9%	계	39	100.0%	

### 2. 평가결과의 일관성

AHP기법의 신뢰성 분석은 각 평가요소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경우 각 개인별 판단성의 오차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인 일관성 비율(CR)을 계산함으로써 가능하다.

일관성은 평가자가 내린 판단의 논리적 모순을 측정하는 것이다. 평가자의 판단에 대한 모순을 측정하여 제거하거나 재검토하는 것이 AHP에서의 일관성 개념이

다(조근태·조용우·강현수, 2003; 정순준·한범수, 2006). 일관성 비율은 0에 가까울수록 판단의 일관성이 있으며, 1에 가까울수록 판단의 일관성이 없다. 일반적으로 일관성비율이 0.1이하이면 의사결정자가 행한 쌍대비교는 합리적인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고 0.2 이내일 경우에는 용납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이면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신영균, 2003; 정순준·한범수, 2006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관광산업의 지역혁신 역량 평가목표에 대한 각 계층별 상대적 중요도의 이원비교의 가중치 CR값은 0.04로 측정되었으며, 각 평가영역의 가중치에 대한 CR값 역시 접근성 0.01, 숙박/여행업 0.06, 회의/전시 0.07, 홍보/안내 0.03, 관광지 0.02, 문화매력물 0.00, 레크리에이션 0.01, 관광객/수입 0.04, 인적자원 0.08, 예산/인센티브 0.08로 Saaty(1982)가 제시한 0.1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평가영역(계층 2)의 분석결과

관광산업의 지역혁신역량 평가요인 계층 2의 접근성, 숙박/여행업, 회의/전시, 홍보/안내, 관광지, 문화매력물, 레크리에이션, 관광객/수입, 인적자원, 예산/인센티브 등의 10가지 평가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의 측정결과는 <표 3>과 같다. 평가영역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문화매력물(0.151), 홍보/안내(0.121), 레크리에이션(0.121), 접근성(0.114), 관광지(0.110), 관광객/수입(0.102), 예산/인센티브(0.079), 인적자원(0.076), 회의/전시(0.069), 숙박/여행업(0.056)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3> 관광산업의 지역혁신역량 평가영역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평가영역	상대적 중요도	순위
접근성	0.114	4위
숙박/여행업	0.056	10위
회의/전시	0.069	9위
홍보/안내	0.121	2위
관광지	0.110	5위
문화매력물	0.151	1위
레크리에이션	0.121	3위
관광객/수입	0.102	6위
인적자원	0.076	8위
예산/인센티브	0.079	7위

### 4. 평가항목(계층 3)의 분석결과

관광산업의 지역혁신역량 평가요인의 접근성, 숙박/여행업, 회의/전시, 홍보/안내, 관광지, 문화매력물, 레크리에이션, 관광객/수입, 인적자원, 예산/인센티브 등의 10가지 평가영역에 대한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측정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관광산업의 지역혁신역량 평가항목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평가영역	평가항목	상대적 중요도	평가영역별 평가요소 우선순위	복합 가중치	전체평가요소 우선순위
접근성	공항이용객수 비율	0.416	1위	0.057	3위
	도로율	0.394	2위	0.041	6위
숙박/여행업	택시 등록대수 비율	0.189	3위	0.017	29위
	관광숙박업수 비율	0.180	3위	0.009	36위
	특급호텔 객실수 비율	0.353	1위	0.021	22위
	관광호텔수 비율	0.294	2위	0.016	32위
회의/전시	여행업체수 비율	0.174	4위	0.010	35위
	국제회의 전문시설수 비율	0.243	3위	0.016	33위
	국제회의 개최건수 비율	0.389	1위	0.032	11위
홍보/안내	국제 박람회 개최건수 비율	0.368	2위	0.021	23위
	홍보물 제작건수 비율	0.305	2위	0.041	4위
관광지	관광안내소수 비율	0.695	1위	0.080	1위
	관광(단)지수 비율	0.265	2위	0.030	15위
	자연공원수 비율	0.219	3위	0.024	18위
	도시공원수 비율	0.197	4위	0.021	24위
문화매력물	관광특구수 비율	0.320	1위	0.037	7위
	문화시설 비율	0.197	3위	0.031	12위
	문화재 지정수 비율	0.121	4위	0.017	28위
	박물관 시설수 비율	0.266	2위	0.041	5위
레크리에이션	축제 개최 건수 비율	0.416	1위	0.065	2위
	리조트 개소수 비율	0.232	4위	0.030	14위
	카지노 연 매출액 비율	0.253	2위	0.029	16위
	골프장 내장객수 비율	0.243	3위	0.031	13위
관광객/수입	스키장 슬로프수 비율	0.271	1위	0.034	9위
	관광수입 비율	0.215	3위	0.021	21위
	GRDP 비율	0.208	4위	0.023	19위
	관광객수 비율	0.273	2위	0.028	17위
인적자원	관광객 평균 증가율	0.332	1위	0.034	10위
	관광인력양성 인원수 비율	0.247	3위	0.017	27위
	관광인력양성 기관수 비율	0.196	4위	0.018	26위
	서비스업 중 관광산업 종사자수 비율	0.307	1위	0.023	20위
예산/인센티브	관광관련 부서 공무원 비율	0.250	2위	0.018	25위
	관광부문 예산 비율	0.418	1위	0.035	8위
	우수여행상품 인센티브제 수 비율	0.175	4위	0.017	30위
	인터넷 관광정보시스템 구축 수 비율	0.236	2위	0.017	31위
	관광산업 관련 독립 추진기구 수 비율	0.204	3위	0.015	34위

접근성 영역의 평가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공항이용객수 비율(0.416), 도로율(0.394), 택시 등록대수 비율(0.189) 순으로 나타났으며, 숙박/여행업 영역에서는 특급호텔 객실수 비율(0.353), 관광호텔수 비율(0.294), 관광숙박업수 비율(0.180), 여행업체수 비율(0.174) 순으로 나타났다. 회의/전시 영역에서는 국제회의 개최건수 비율(0.389), 국제 박람회 개최건수 비율(0.368), 국제회의 전문시설수 비율(0.243) 순으로 나타났으며, 홍보/안내 영역에서는 관광안내소수 비율(0.695), 홍보물 제작건수 비율(0.305) 순으로 나타났다. 관광지 영역에서는 관광특구수 비율(0.320), 관광(단)지수 비율(0.265), 자연공원수 비율(0.219), 도시공원수 비율(0.197) 순으로 나타났고, 문화매력물 영역의 평가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축제 개최 건수 비율(0.416), 박물관 시설수 비율(0.266), 문화시설 비율(0.197), 문화재 지정수 비율(0.121)로 나타났다. 레크리에이션 영역에서는 스키장 슬로프수 비율(0.271), 카지노 연 매출액 비율(0.253), 골프장 내장객수 비율(0.243), 리조트 개소수 비율(0.232) 순으로 나타났으며, 관광객/수입 영역에서는 관광객 평균 증가율(0.332), 관광객수 비율(0.273), 관광수입 비율(0.215), GRDP 비율(0.208) 순이었다. 인적자원 영역의 평가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서비스업 중 관광산업 종사자수 비율(0.307), 관광관련 부서 공무원 비율(0.250), 관광인력양성 인원수 비율(0.247), 관광인력양성 기관수 비율(0.196) 순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인센티브 영역에서는 관광부문 예산 비율(0.418), 인터넷 관광정보 시스템 구축 수 비율(0.236), 관광산업 관련 독립 추진기구 수 비율(0.204), 우수여행상품 인센티브제 수 비율(0.175) 순으로 나타났다.

### 5. 복합가중치 및 전체평가항목의 비교분석

다음의 <그림 2>는 관광산업의 지역혁신역량 각각의 평가항목별 전체에 대한 복합가중치와 평가항목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평가영역별 상대적 우선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문화매력물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각 평가항목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축제 개최 건수 비율이 2위, 박물관 시설수 비율이 5위, 문화시설 비율이 12위, 문화재 지정수 비율이 28위를 차지하였다.

둘째, 평가영역별 상대적 우선순위 2위인 홍보/안내 영역에 포함된 각 평가항목들은 관광안내소수 비율이 1위, 홍보물 제작건수 비율이 4위를 차지하여 전반적으

로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셋째, 평가영역별 상대적 우선순위 3위를 차지한 레크리에이션 영역에 포함된 각 평가항목들은 스키장 슬로프수 비율이 9위, 골프장 내장객수 비율이 13위, 리조트 개소수 비율이 14위, 카지노 연 매출액 비율이 16위로 나타났다.

넷째, 평가영역별 상대적 우선순위 4위를 차지한 접근성 영역에 포함된 각 평가항목들은 공항이용객수 비율이 3위, 도로율이 6위, 택시 등록대수 비율이 29위를 차지하였다.

다섯째, 평가영역별 상대적 우선순위 5위를 차지한 관광지 영역에 포함된 각 평가항목들은 관광특구수 비율이 7위, 관광(단)지수 비율이 15위, 자연공원수 비율이 18위, 도시공원수 비율이 24위를 점하고 있었다.



<그림 2> 관광산업의 지역혁신역량 평가항목별 가중치

여섯째, 평가영역별 상대적 우선순위 6위를 차지한 관광객/수입 영역에 포함된 각 평가항목들은 관광객 평균 증가율이 10위, 관광객수 비율이 17위, GRDP 비율이 19위, 관광수입 비율이 21위로 나타났다.

일곱째, 평가영역별 상대적 우선순위 7위를 차지한 예산/인센티브 영역에 포함된 각 평가항목들은 관광부문 예산 비율이 8위, 우수여행상품 인센티브제 수 비율이 30위, 인터넷 관광정보시스템 구축 수 비율이 31위, 관광산업 관련 독립 추진 기구 수 비율이 34위를 차지하는 등 상대적 중요도가 낮은 편이다.

여덟째, 평가영역별 상대적 우선순위 8위를 차지한 인적자원 영역에 포함된 각 평가항목에서도 서비스업 중 관광산업 종사자수 비율이 20위, 관광관련 부서 공무원 비율이 25위, 관광인력양성 기관수 비율이 26위, 관광인력양성 인원수 비율이 27위를 점하고 있어 상대적 중요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아홉째, 평가영역별 상대적 우선순위 9위를 차지한 회의/전시 영역에 포함된 각 평가항목들은 국제회의 개최건수 비율이 11위, 국제 박람회 개최건수 비율이 23위, 국제회의 전문시설수 비율이 33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가영역별 상대적 우선순위 10위를 차지한 숙박/여행업 영역에 포함된 각 평가항목들은 특급호텔 객실수 비율이 22위, 관광호텔수 비율이 32위, 여행업체수 비율이 35위, 관광숙박업수 비율이 36위를 점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났다.

## 6. 강원도·전라북도 관광산업의 지역혁신역량 지수 비교

강원도와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지역혁신역량 지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관광산업의 지역혁신역량 평가영역(계층 2)과 평가요소(계층 3)의 AHP 분석결과 도출된 가중치를 각각의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와 계산하여 관광산업의 지역혁신역량지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지역혁신 역량지수 산출을 위한 평가항목 중 '관광수입 비율'은 현재 인바운드 관광 총수입만 조사되고 있으며,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지역혁신 역량지수 산출에 필요한 지역별 관광수입 비율에 관한 자료는 샘플링에 의한 추정치(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였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관광수입 비율을 제외한 35개의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각각의 지역혁신역량 지수를 산출한 결과 강원도의 지역혁신역량 지수(13.210)가 전라북도의 지역혁신역량지수(8.083)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관광산업의 지역혁신역량 지수 비교

평가영역	평가항목	전국	강원	전북	강원 비율	전북 비율	가중치	강원 지수	전북 지수
접근성	공항이용객수 비율(천명, %) <sup>1)</sup>	20,006	44	51	0.222	0.260	0.057	0.013	<b>0.015</b>
	도로율(km, %) <sup>2)</sup>	104,236	9,651	7,883	9.259	7.563	0.041	<b>0.380</b>	0.310
	택시 등록대수 비율(대, %) <sup>2)</sup>	252,215	7,865	9,499	3.118	3.766	0.017	0.053	<b>0.064</b>
숙박/ 여행업	관광숙박업수 비율(개소, %) <sup>2)</sup>	819	89	26	10.867	3.175	0.009	<b>0.098</b>	0.029
	특급호텔 객실수 비율(실, %) <sup>2)</sup>	32,937	2,235	395	6.786	1.199	0.021	<b>0.142</b>	0.025
	관광호텔수 비율(개소, %) <sup>2)</sup>	610	32	14	5.246	2.295	0.016	<b>0.084</b>	0.037
회의/ 전시	여행업체수 비율(개소, %) <sup>2)</sup>	9,650	183	298	1.896	3.088	0.010	0.019	<b>0.031</b>
	국제회의 전문시설수 비율(개소, %) <sup>3)</sup>	181	12	4	6.630	2.210	0.016	<b>0.106</b>	0.035
	국제회의 개최건수 비율(건, %) <sup>3)</sup>	635	5	4	0.787	0.630	0.032	<b>0.025</b>	0.020
홍보/ 안내	국제 박람회 개최건수 비율(건, %) <sup>4)</sup>	0	0	0	0.000	0.000	0.021	0.000	0.000
	홍보물 제작건수 비율(건, %) <sup>5)</sup>	119	5	10	4.202	8.403	0.041	0.172	<b>0.345</b>
	관광안내소수 비율(개소, %) <sup>5)</sup>	215	31	3	14.419	1.395	0.080	<b>1.153</b>	0.112
관광지	관광(단)지수 비율(개소, %) <sup>2)</sup>	253	46	25	18.182	9.881	0.030	<b>0.545</b>	0.296
	자연공원수 비율(개소, %) <sup>2)</sup>	76	8	10	10.526	13.158	0.024	0.253	<b>0.316</b>
	도시공원수 비율(개소, %) <sup>6)</sup>	11,760	747	461	6.352	3.920	0.021	<b>0.133</b>	0.082
문화 매력물	관광특구수 비율(개소, %) <sup>2)</sup>	26	2	2	7.692	7.692	0.037	0.285	0.285
	문화시설 비율(개소, %) <sup>4)</sup>	1,741	140	105	8.041	6.031	0.031	<b>0.249</b>	0.187
	문화재 지정수 비율(건, %) <sup>4)</sup>	10,272	533	728	5.189	7.087	0.017	0.088	<b>0.120</b>
레크리 에이션	박물관 시설수 비율(개소, %) <sup>4)</sup>	578	58	29	10.035	5.017	0.041	<b>0.411</b>	0.206
	축제 개최 건수 비율(건, %) <sup>2)</sup>	177	18	13	10.169	7.345	0.065	<b>0.661</b>	0.477
	리조트 개소수 비율(개소, %) <sup>4)</sup>	86	21	7	24.419	8.140	0.030	<b>0.733</b>	0.244
관광객/ 수입	카지노 연 매출액 비율(10억원, %) <sup>4)</sup>	1,818	1,065	0	58.606	0.000	0.029	<b>1.700</b>	0.000
	골프장 내장객수 비율(천명, %) <sup>7)</sup>	16,867	1,138	332	6.748	1.973	0.031	<b>0.209</b>	0.061
	스키장 슬로프수 비율(개소, %) <sup>4)</sup>	232	140	34	60.345	14.655	0.034	<b>2.052</b>	0.498
인적 자원	관광수입 비율*	N/A*	N/A	N/A	N/A	N/A	0.021	N/A	N/A
	GRDP 비율(10억원, %) <sup>8)</sup>	848,045	23,540	26,297	2.776	3.101	0.023	0.064	<b>0.071</b>
	관광객수 비율(천명, %) <sup>4)</sup>	738,534	92,206	47,457	12.485	6.426	0.028	<b>0.350</b>	0.180
예산/ 인센티브	관광객 평균 증가율(% , %) <sup>4)</sup>	14.8	8.8	13.6	59.459	91.892	0.034	2.022	<b>3.124</b>
	관광인력양성 인원수 비율(명, %) <sup>2)</sup>	34,338	3,553	1,581	10.347	4.604	0.017	<b>0.176</b>	0.078
	관광인력양성 기관수 비율(개소, %) <sup>2)</sup>	1,149	100	71	8.703	6.179	0.018	<b>0.157</b>	0.111
예산/ 인센티브	서비스업 중 관광산업 종사자수 비율(명, %) <sup>6)</sup>	175,217	8,562	5,457	4.887	3.114	0.023	<b>0.112</b>	0.072
	관광관련 부서 공무원 비율(명, %) <sup>2)</sup>	671	44	22	6.557	3.279	0.018	<b>0.118</b>	0.059
	관광부문 예산 비율(백만원, %) <sup>2)</sup>	772,688	71,229	26,345	9.218	3.410	0.035	<b>0.323</b>	0.119
예산/ 인센티브	우수여행상품 인센티브제 수 비율(회, %) <sup>5)</sup>	22	1	2	4.545	9.091	0.017	0.077	<b>0.155</b>
	인터넷 관광정보시스템 구축 수 비율(건, %) <sup>5)</sup>	24	1	2	4.167	8.333	0.017	0.071	<b>0.142</b>
	관광산업 관련 독립 추진기구 수 비율(개소, %) <sup>8)</sup>	17	2	2	11.765	11.765	0.015	0.176	0.176
Total							1.000	<b>13.210</b>	<b>8.083</b>

\* N/A (not available), 관광수입은 국내 전체 관광수입과 지역별 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본 분석에서는 제외됨.

\*\* 주 : 1) 한국공항공사(2008). 항공통계(www.airport.co.kr), 2) 문화체육관광부(2009).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3) 한국관광공사(2009). 국제회의 개최현황, 4) 관광지식정보시스템, www.tour.go.kr, 5) 각 시/도청 홈페이지, 6) KOSIS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7) 한국골프장경영협회(2008). 골프장 내장객 현황(www.kgba.co.kr), 8) 한국관광공사, korean.visitkorea.or.kr

지역별 상대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혁신역량 지표는 강원도가 도로율, 관광숙박업수 비율, 특급호텔 객실수 비율, 관광호텔수 비율, 국제회의 전문시설수 비율, 국제회의 개최건수 비율, 관광안내소수 비율, 관광(단)지수 비율, 도시공원수 비율, 문화시설 비율, 박물관 시설수 비율, 축제 개최 건수 비율, 리조트 개소수 비율, 카지노 연 매출액 비율, 골프장 내장객수 비율, 스키장 슬로프수 비율, 관광객수 비율, 관광인력 양성 인원수 비율, 관광인력양성 기관수 비율, 서비스업 중 관광산업 종사자수 비율, 관광관련 부서 공무원 비율, 관광부문 예산 비율 등 22개 평가항목이었으며, 전라북도는 10개의 평가항목(공항이용객수 비율, 택시 등록대수 비율, 여행업체수 비율, 홍보물 제작건수 비율, 자연공원수 비율, 문화재 지정수 비율, GRDP 비율, 관광객 평균 증가율, 우수여행상품 인센티브제 수 비율, 인터넷 관광정보시스템 구축 수 비율)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광산업의 지역혁신역량에서 관광자원적 요소들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어 관광객 흡인요소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라 분석된 계층 2의 분석결과와 같이 강원도의 관광산업 지역혁신역량이 전라북도의 지역혁신역량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 V. 결 론

이 연구는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관광산업의 지역혁신역량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AHP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목표에 따라 세부 평가항목의 합리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일관성지수가 0.1 이하로 나타난 표본은 39매였다. 이는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중 65.0%가 일관성 있는 답변을 했음을 의미한다. 관광산업의 지역혁신역량 평가요인 중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측정된 결과 나타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산업의 지역혁신역량 지표에 대한 <계층 2>의 평가요인별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문화매력물'이 가장 중요한 요인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홍보/안내', '레크리에이션', '접근성', '관광지', '관광객/수입', '예산/인센티브', '인적자원', '회의/전시', '숙박/여행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관광산업의 지역혁신역량이 접근성과 관광기반시설 및 인적자원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관광산업 역량측면에서는 관광자원적 요소들(문화매력물, 레크리에이션, 관광지 등)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것은 관광산업 혁신역량으로서 관광객 흡인요소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혁신역량 지수에 대한 <계층 3>의 평가항목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문화매력물'에서는 축제 개최 건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되었으며, '홍보/안내' 영역에서는 관광안내소수 비율, '레크리에이션' 영역에서는 스키장 슬로프수 비율, '접근성' 영역에서는 공항이용객수 비율, '관광지' 영역은 관광특구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관광객/수입' 영역에서는 관광객 평균 증가율, '예산/인센티브' 영역은 관광부문 예산 비율, '인적자원' 영역에서는 서비스업 중 관광산업 종사자수 비율, '회의/전시' 영역은 국제회의 개최건수 비율, '숙박/여행업'에서는 특급호텔 객실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중요도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관광산업을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채택하여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할 때 위에 제시된 지표들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 각각의 가중치를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관광산업에 적용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강원도의 관광산업 지역혁신역량 지수가 전라북도의 지역혁신역량 지수보다 높게 도출되었다.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역혁신은 모든 지역에 대해 자원의 균등한 배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비교우위가 있는 부분에 대한 특화와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며, 모든 지역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시켜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채택한 지역마다 관광산업 지역혁신역량 지수가 나타내는 발전 정도와 경쟁력 즉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혁신역량을 얼마나 육성하고 결집시키는가에 따라 그 성공여부가 크게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관광산업의 지역혁신역량 지수의 강화를 통해 관광산업의 특성화 목표를 보다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자원의 수를 늘리기 보다는 지방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혁신자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그것이 지역의 혁신활동이나 노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혁신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 산출된 혁신역량지수 모델은 전국을 망라하는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산업 지역혁신역량을 비교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관광산업 지역혁신역량 지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관광수입'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불가하여 분석 변수에 포함시키지 못한 점, 그리고 당초에 평가요인으로 고려하지 못한 변수들이 있다는 점, 예컨대 지역혁신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각 지역의 혁신역량 변수의 강도와 질적인 차이 및 각 지역의 독특한 혁신 관련제도나 정책의 차이 등이 생략된 점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



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실제적으로 지역별 혁신역량이 어떻게 측정되고 활용되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며, 향후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가 더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정임(2006). 강원도 관광산업의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지표개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관광지식정보시스템. www.tour.go.kr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4).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서울: 동도원.

금기용·장윤희(2006). 「동아시아 도시 간 국제관광경쟁력 비교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경수·김형빈(2006).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격차 분석: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 129-149.

김경희(2005). 지역혁신클러스터를 위한 지역혁신역량과 지역산업성과간의 실증 및 비교분석. 『무역학회지』, 30(6), 27-45.

김진수·최명신(2007). 한국의 기초자치단체별 혁신역량 비교연구. 『지식연구』, 5(2), 29-57.

김홍식(2009). 문화관광 경쟁력 국제비교분석: 경기도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3(4), 169-189.

문화체육관광부(2009). 「2008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박성복(1997). 지역발전도 및 지역불평등도의 측정. 『한국행정학보』, 31, 165-185.

법제처(2009). 관광진흥법(http://www.moleg.go.kr).

심원섭(2007). 포터(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국가경쟁력 비교 분석 연구. 『관광학연구』, 31(4), 11-32.

유병규·박영금(2004). 『지역별 지식혁신능력 추이와 클러스터 전략』, 현대경제연구원.

이창효(2000). 『집단의사결정론』. 서울: 세종출판사.

장석인·정은미·이상연·박정수(2001). 「혁신역량과 산업발전」. 서울: 산업연구원.

장은영(2004). 관광지혁신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9(4), 175-191.

정승준·한범수(2006). 계층화 분석(AHP)을 이용한 2005 경기반문의 해 사업평가. 『관광학연구』, 30(3), 183-202.

정재진·임채홍(2008). 지역혁신역량에 따른 혁신기업의 입지와 성과에 관한 실증분석. 『정부학연구』, 14(4), 171-200.

조근태·조용우·강현수(2003). 『앞서가는 리더들의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서울: 동원출판사.

한국골프장경영협회(2008). 골프장 내장객 현황(www.kgba.co.kr).

한국공항공사(2008). 항공통계(www.airport.co.kr).

한국관광공사(2009). 2008 국제회의 개최현황.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korean.visitkorea.or.kr.

KOSIS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Bosco, M. G.(2007). Innovation, R&D and Technology Transfer: Policies towards a Regional Innovation System: The Case of Lombardy. *European Planning Studies*, 15(8), 1085-1111.

Choi, Y. R., & Lee, E. Y.(2009). Optimizing Risk Management for the Sustainable Performance of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in Korea through Metamediation. *Human and Ecological Risk Assess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15(2), 270-280.

Cooke, P, Uranga, M. G., & Etxebarria, G.(1997). Regional innovation systems: Institutional and organisational dimensions. *Research Policy*, 26, 475-491.

Crouch, G. L., & Ritchie, J. R.(1999). Tourism, Competitiveness, and Societal Prosperity.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44, 137-152.

Doloreuxa, D. & Parto, S.(2005). Regional innovation systems: Current discourse and unresolved issues. *Technology in Society*, 27, 133-153.

Gerstlberger, W.(2004). Regional innovation systems and sustainability - selected examples of international discussion. *Technovation*, 24, 749-758.

Poon, A.(1993). *Tourism, Technology and Competitive Strategy*. CAB International, Wallington, UK.

Porter, M. E.(1990). *The Competitiveness Advantage of Nations*, The Free Press, New York.

Saaty, T. L.(1982).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 new approach to deal with fuzziness in architecture. *Architect Science Review*, 25, 64-69.

World Economic Forum(2009).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09*.

2009년 12월 29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10년 2월 2일 최종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통보  
 2010년 2월 6일 최종논문 도착  
 3인 익명심사 畢